

연표처럼 정리한 자료중심의 현대미술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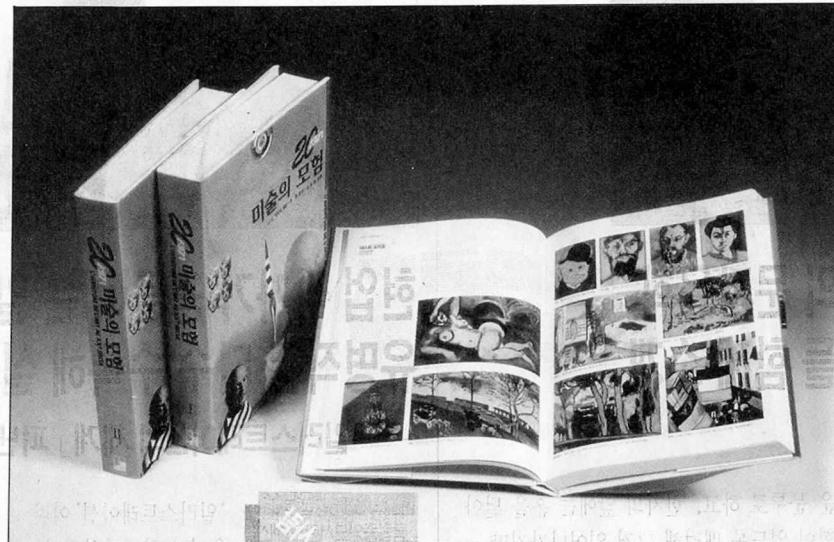
장 루이 페리에 지음 「20세기 미술의 모험」

圖版류를 비롯한 미술도서 전문출판사 API 인터내셔널(대표 김중돈)이 프랑스 현지에서 「최우수 자료정리 도서상」을 수상한 바 있는 「20세기 미술의 모험」 전3권을 펴냈다. 프랑스의 국립장식미술학교 교수이자 저명한 평론가이기도 한 장 루이 페리에의 저서를 김정화씨(서울대 미학과 강사)가 번역하고 이일씨(홍익대 미대 교수)가 감수한 이 책은 전문적인 내용을 자료 중심으로 쉽게 풀어쓴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히는데, 1990년 초판이 발간됐던 제1권(1900년~1945년)과 2권(1946년~1991년)은 중보판으로, 자료편으로 구성된 제3권은 완전한 신판으로 이번에 비로소 완간을 보게 됐다.

한해 단위로 미술사적 사건 정리

기왕의 미술사책이나 미술사전들이 단원이나 주제, 항목별로 돼 있는데 반해 이 책의 구성은 매우 독특하다. “마치 신문과도 같이 매해 발생한 주요한 사건만을 다룸으로써 전체에 걸쳐 끊기지 않는 맥락을 연결해 나가고 있다.” 저자 페리에는 머리말에서 “1900년에서 1991년에 이르는 동안 회화, 조각 및 건축 분야에서 매해마다 예술계의 중요한 사항만을 선택함으로써 현대미술을 성립시킨 주요 운동들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예술가들이 품고 있던 생각은 과연 어떤 것이며, 또한 이들이 인정받기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은 어떤 것이었던가를 보게 된다”고 자부하고 있다.

가령, 제1권의 첫머리를 들추면 10년을 단위로 구분된 것 중 첫번째인 1900년대의 연표



가 수록돼 있다. 미술사가 물론 중심이지만, 그밖의 예술 및 과학, 정치 및 사회의 사건들도 같이 정리돼 있어 이 연표는 ‘시대와 사회 속의 미술’을 알게 한다. 이어 한해 단위로 그 해에 일어난 의미있는 미술사적 사건들이 차례로 기술된다. 20세기 미술의 첫장을 연 1900년을 예로 들면, 프랑스의 만국박람회 개최,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전시회, 에드바르 몽크의 명작 ‘삶의 춤’ 제작, 19세의 젊은 피카소 파리 화단 진출 등이 풍부한 사진과 도판을 곁들여 간명하고 요령있게 기술돼 있다.

제2권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1991년 부분을 보면, 프랑스 미술계의 주목을 끈 달니엘 뷔렌을 비롯해 와REN느 르루아와 오토 딕스 같은 새삼스레 재발견된 화가들, 전유럽에서 10만명의 관람객이 모여든 스위스에서의 샤갈 회고전, 아방가르드 미술관으로 새롭게 단장

된 파리 죄드-포드 미술관 등에 관한 기술이 역시 풍부한 시각자료와 함께 수록돼 있다.

20세기 미술이 걸어온 역정을 작가들과 그들의 걸작품, 주요한 미술운동과 그곳에서 비롯된 선언과 이론, 전시회와 평론, 그리고 미술행위가 벌어지는 현장을 통해 그려보여 주는 셈이다. 그런 점에서 ‘자료로 보는 미술사’의 성격을 갖는 이 책은, 그밖에도 프로이드나 맥루한 등 당대의 미술에 깊은 영향을 끼쳤던 작가나 사상가들도 그들의 저서에서 발췌한 글을 통해 함께 소개하고 있어 특징적이다.

시각자료 풍부하게 동원해 특징적

원래의 텍스트와는 무관하게 번역자 김정화씨가 편찬하여 이번에 새로 선보인 제3권 ‘자료편’의 특징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구성된 제1권과 2권의 내용을 주제 및 항목별로 재정리

한데다가 도움이 되는 자료들을 덧붙인 점, 모두 여섯부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20세기 미술운동사전’에서는 20세기 미술에 모험의 첫문을 연 야수파에서 1980년대 이탈리아의 트랑스아방가르드에 이르기까지 각종 미술운동을 가나다 순으로 정리, 역시 풍부한 시각자료와 함께 설명하고 있다.

「20세기미술가인명사전」 편에는 350명에 달하는 20세기 작가의 약력과 작품세계가 소개돼 있고, 「참고문헌」편에는 20세기 미술에 관한 책들이 나라별, 미술운동별, 작가별로 정리돼 있어 보다 풍부한 자료나 진전된 독서를 원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을 준다. 그밖에 제1권과 2권의 본문에서 언급됐던 도서 및 작가의 어록이 인용된 출처를 밝히고 있는가 하면, 도판이 게재된 작품을 작가별로 다시 정리해 주고 있기도 하다.

권말에는 「색인」을 달아 필요한 사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는데, 제3권의 ‘운동사전’과 ‘인명사전’에서 독립된 항목으로 다루어진 것, 그리고 본문에 도판이 게재된 것은 따로 면수를 짚은 글씨로 표시하는 등 세심한 신경을 썼다.

A4 크기에 총 1170면, 고급스노우화이트지에 전면 원색으로 값은 21만원. 제1권과 2권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분은 제3권만 6만원에 따로 구입할 수도 있다. 문의 전화는 API 영업부 511-3840번.

변혁시대의 사회철학

김태길 지음 / 값 7,000원

저자는 이 저서에서 삶의 문제를 개인 저마다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문제의 실마리를 이 개념의 철저한 분석에서 찾는다. 그리하여 개인의 의식구조와 사회구조의 밀접한 관계를 지적하고 사회를 ‘확대된 자아’로 인식하며 개인의 문제도 사회문제의 진단을 통해 이해하고자 한다.

유교적 전통과 중국혁명

송영배 지음 / 값 10,000원

중국혁명을 탈유교화 및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유교적 중국사회를 사회·경제적으로 분석.

논리와 비판적 사고

개정판 ! 김광수 지음 / 값 9,000원

민주주의와 토론문화의 지침서 !

합리적 사회와 논리, 논리적 형식 추출 및 예증과 반증 등 논리학의 기본 생활들을 한국의 현실과 연관시켜서 설명한 논리입문서.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논리적 사고능력을 키워주는 교사, 학부형, 직장인들의 필독서.

철학과 현실사

서울 서초구 양재동 338-10
T. 579-5908 · 9 F. 572-2830

청소년이 볼만한 좋은 책

대학입시 준비를 위한 학생들의 필독서 !

■ 생각하는 나무

황경식 역 / 값 3,500원

■ 시인들의 합창

황경식 역 / 값 3,500원

■ 흔들리는 교정

황경식 역 / 값 3,500원

■ 노마네반 아이들

어린이철학연구소 편 / 값 3,000원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유도하면서도 전문용어를 쓰지 않는 철학소설로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교과와 연관되어 널리 읽히고 있다.